

이 대통령 '국정 장악' 다시 힘받나

'쓴소리' 귀 기울이고 법 질서 회복 강력 천명

민생 추스리며 전통 지지층 결집 내심 기대도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쇠고기 정국' 타개에 발 벗고 나섰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을 계기로 쇠고기 파동으로 심각하게 훼손됐던 국정운영의 주도권 회복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촛불시위의 일부 과격화 경향에 대해 "일부 정책에 비판하는 시위는 정부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만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촛불집회의 폭력성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민심을 빚자한 폭력행위나 국정 흔들기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시민들의 생활고를 계속 방치할 경우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시민들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고유가, 물가안정, 식품안전, 장마철 재해예방 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서민 추스르기를 강조한 것이

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 2기 참모진이 연일 소통 행보를 보이는 것도 크게 보면 민심 잡기로 해석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쇠고기 파동'에 대한 반성의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폭력시위에 엄정 대처하고 경제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은 최대한 보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2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의 민심은 겉혀히 수용되기를 막으려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흐트러진 국정 질서를 바로잡고, 이를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진력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 대변인인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이 이날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 브리핑을 겸한 논평을 내고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불법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제 촛불을 끄고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공개 촉구한 것도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국정 정상화를 이끄는 과정에서 이탈한 전통 지지층과 중도보수 세력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친박'(親朴·친박근혜)계 인사들의 복당을 허용한 것이나, 사실상 보수진영을 양분하고 있는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와 화해한 것도 결국은 기존의 지지층 결속을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한편,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지난 22일 전국 17개 시도 4천27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3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관계자는 "쇠고기 파동이 조만간 극복되면서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이라며 "특히, 이 과정에서 이탈했던 지지세력들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남일 市의원 사퇴 촉구

광주시공무원 노조 ... 의회선 사과문 발표

광주시공무원 노조조합은 24일 복지법인 인가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건 구속영장이 신청된 광주시의회 김남일 의원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물의를 일으킨 김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광주시의회는 윤리강령 실천과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김의원이 공무원 로비 자금 명분으로 1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이 사실이라면, 광주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집행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의원이 오히려 지위를 남용,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사법처리를 받는 사태까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의원의 아들 명의로 복지법인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김모(48·여)씨에게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토지매입 비용과 담당 공무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모두 1억6천만원을 받아 책간 혐의를 지난 23일 경찰에 의해 사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후 3시 광주지법에서 있을 예정이다. /윤영기·김지욱기자 dok2000@

의장 선출 방식 공개 질의

시의회 무성의 일관 빈축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둔 광주시의회가 의장 선출 방식 등 시민단체가 보낸 공개 질의에 무성의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광주YMCA와 광주경찰청 등 지역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광주시의회 의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통해 의장선출 방식과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지만 마감 시한인 지난 22일까지 19명의 의원

가운데 3명만이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답변서를 제출한 의원은 유재신(광산2·민주), 김월출(서구4·민주), 이정남(광산3·민주) 의원 등이었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 중에는 후반기 의장을 염두에 두고 뛰고 있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25일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힐 계획이다. /김지욱기자 dok2000@

靑, 수석급 홍보기획관 신설

"국민과 소통 강화" 조직 개편 단행 ... 1실-7수석-1대변인 체제로

청와대는 24일 수석급 홍보기획관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홍보1, 2비서관과 연설기록비서관, 국민소통비서관을 두는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조직은 기존의 1실-7수석-1대변인 체제에서 1실-7수석-1대변인-1기획관 체제로 조정됐다.

우선 그동안 각 비서관의 업무를 취합, 조정하는 역할 등을 맡아 '왕(王) 비서관' 자리로 통했던 기획조정비서관은 기획관리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 청와대 내부 감찰 업무를 민정수석실로 이관했으며, 정부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 1, 2비서관을 정부비서관과 정부기획비서관, 시

민사회비서관으로 세분했다. 경제수석실 내의 재정경제비서관과 금융비서관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국정기획수석실 산하의 국제과제 1, 2비서관은 국제과제비서관으로, 교육과학문화수석실 내의 문화예술비서관과 관광체육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비서관으로 각각 통합됐다.

신설된 홍보기획관에는 박준천 전 의원이, 산하 홍보1비서관에는 이동우 한국경제신문 전략기획국장, 홍보2비서관은 이성복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이 내정됐다.

또, 연설기록비서관은 정용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국민소통비서관은 김철균 전 다음 부사장이 맡게 된다. 정부수

석실 산하 정부비서관은 김해수 전 한나라당 부대변인, 정부기획비서관은 김두우 정부2비서관, 시민사회비서관은 임삼진 전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내정됐다.

대통령실장 소속 기획관리비서관은 정인철 전 인수위 전문위원,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1비서관은 장 다사로 정부1비서관이 각각 확정됐고 민정2비서관은 오세경 변호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경제금융비서관은 김동연 재정경제1비서관, 국제과제비서관은 허경국 국제과제1비서관, 문화체육관광비서관은 모철민 관광체육비서관이 확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市·道당 대의원 대회

내달 1일 DJ센터서 개최

대의원 선정 비율을 둘러싼 계파간 다툼으로 무기연기됐던 통합민주당 광주·전남 시도당 대의원대회가 다음달 1일 열린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24일, 당초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시도 대의원대회를 다음달 1일 오후 4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에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이날 대의원대회 공고를 냈으며 28일까지 시당위원장 후보등록을 접수한다.

광주시당 김성현 사무처장은 "일부 지역위원회에서 대의원 구성 비율을 놓고 구민주계의 반발이 있었으나 당내 화합과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대의원 대회를 다음달 1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전남도당도 같은 날 오후 2시 나주실내체육관에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의원대회 보이콧 의사까지 밝혔던 국창근 전남도당위원장 후보(현 도당 공동위원장)는 "당원의 입장에서 대회 보이콧 의사에는 변함이 없지만 도당위원장으로서 대회는 치를 수 밖에 없다"며 사실상 참가 의사를 밝혔다.

이번 대의원대회 개최 결정으로 시·도당 대의원 선정과 관련된 갈등은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으나 일부 지역위원회에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홍행기기자 redplane@

고흥군의회 후반기 의장

함재규 의원 선출

고흥군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에 함재규(63·사진)의원이 선출됐다.

고흥군의회는 24일 임시회를 열고 전체 12명의 의원 가운데 7명의 지지 표를 얻은 함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의장직을 놓고 함 의원과 거문 배기홍



(56) 의원은 4표를 얻었다. 부의장에는 김옥래(60)의원이 선출됐다. 재선의원인 함 심임 의장은 "군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과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대한민국대표 종합여행기업 - 롯데관광 LOTTOUR.com

200만명 외국관광객유치·5억달러 획득·국내관광 활성화, 건전 해외여행 선도

37년 전통의 노하우를 가진 국내최고 종합여행기업

무안 ⇄ 상해 동반자할인 7% 할인

Family Tour: 상해(푸젠)항주, 서당 4일 ₩569,000-789,000

Friend Tour: 정통상해, 항주, 서당 4일 ₩399,000-569,000

Japan: 일본 인천출발 북해도/북규슈

East Asia: 동남아 인천출발 다중태국/홍콩

Europe: 유럽 인천출발 서유럽 북유럽 러시아/북유럽

South Korea: 남태평양 인천출발 개런즈/관